

2년전 교훈 잇고 여수산단 또 대형 정전 사태

송전선 복선화없인 언제든 재발

한전-한화 책임 공방...이윤호 경제 "다각적 대책 모색"

지난 2006년 3차례 정전 사고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또 다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형공장들의 가동이 중단(shut-down)돼 피해액이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해업체와 한국전력 측은 정전 원인을 둘러싸고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어 정확한 정전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공방은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수 산단 정전사고가 2년만에 또 다시 발생해 송전선로 복선화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규모 1천억 넘을 듯**=화학공장 특성상 1~2초간 정전이 되더라도 각종 장비와 설비 등 공장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 선 것이라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시운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장 시스템 정상 가동까지는 보통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하루 매출액이 170억원 정도인 여천 NCC의 경우 손실액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석유화학 역시 이틀간 7천여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 매출 피해액은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 일부 공장이 중단된 대림산업, GS칼텍스, LG디오케미칼 등 나머지 공장의 피해액과 해당 화학공장에서 원료를 공급받는 협력업체 등의 피해까지 합하면 전체 피해액은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정전사태 교훈 잇었나**=지난 2006년 여수 GS칼텍스 정전사고 이후에도 전문가들은 한전의 전기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직렬식(1회선

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 시스템 대신, 병렬식(2개의 회선에 상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고 당사자였던 GS칼텍스만 복선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해 오는 5월께 완공될 예정이었다. 여수산단 관계자는 "2006년에도 3차례나 정전사고가 발생했는데 한전과 피해 기업 간에 책임 공방만 벌이고 정전사고 방지 대책회의도 모두 헛수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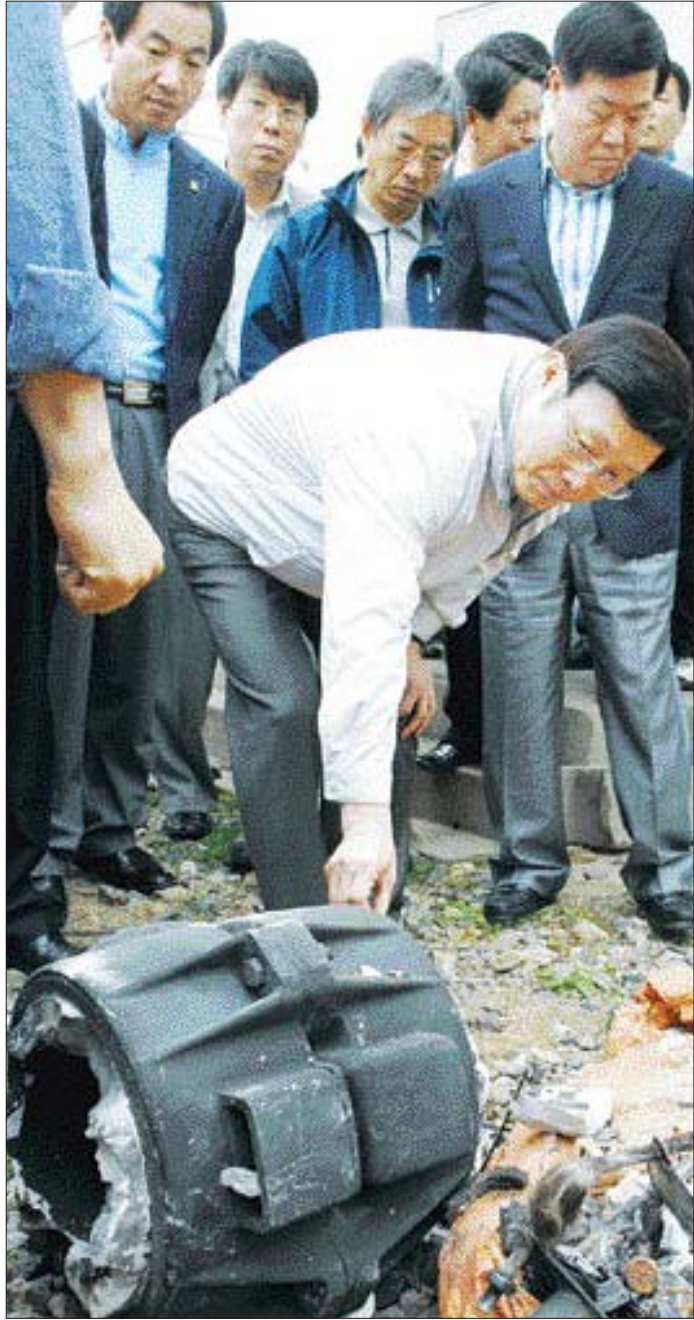
◇**책임공방 가열-대안은?**=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는 한화석유화학 공장의 나뉜중력보호장치가 불에 탄 이유를 놓고 한화석유화학과 한전 측이 각기 다른 견해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전 측은 "교체주기가 15년이나 30년 가장 사용된 한화석유화학 내의 낡은 나뉜중력보호장치가 폭발하면서 전력 선로에 이상이 발생해 전력이 다문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화석유화학 관계자는 "우리 쪽의 시설이 고장 났다 해서 정전시설이 연결돼 있지 않은 다른 공장까지 연쇄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전에서 공급한 전압이 너무 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4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여수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도 어렵고 여수 엑스포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석유화학단지처럼 국가경제에 영향이 큰 집적단지에 대해서는 순간 전압 강하 억제 설비 설치와 송전선로 복선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밝혔다.

/여수=김필상·박양규·지광현 기자 kps@



4일 오전 여수산단을 방문한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번 정전사고의 원인인 라이팅 어레스터(낙뢰 충격보호장치)를 만져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1개대 임시이사 153명 내달까지 교체

조선대 정상화 곧 결말날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대부분을 6월말까지 교체하겠다고 밝힌 조선대의 정상화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임시이사가 과거된 22개 대학의 임시이사 165명 중 21개 대학의 153명을 6월말까지 교체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임시이사 과거 사유가 해소된 대학은 정이사로, 나머지는 임시이사로 6월말까지 이사진을 긴급 교체할 계획이다. 교과부가 언급한 21개 대학 중 조선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은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조선대의 경우 옛 재단 인사의 정이사 체제 참여 요구가 정상화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하면서 '옛 재단 인사의 철저한 배제'를 제1의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고 박철홍 전 총장 일

가 등 옛 재단측 인사들은 줄곧 정이사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대 법인 정상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정기회의에서 조선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임시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사학분쟁조정위 관계자가 '조선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다"며 "현재 대화 중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 중인 것은 조선대 밖에 없으므로 15일에도 주로 조선대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기회의에 앞서 "조선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위원회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옛 재단 인사의 정이사 참여 등을 포함한 조선대 정상화 전환은 5월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나원침 (7498) 김중두



'묻지마' 차량 파손·절도 3명 붙잡아

해남경찰은 3일 주차된 차량 수십대를 파손하고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서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군 등은 이날 새벽 0시15분부터 1시간여 동안 해남군 해남읍 일대 주차장 등을 돌며 쇠파대 등으로 차량 31대의 백미러 등을 깨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돈이 잠겨있지 않은 신

모(48)씨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2천원 가량의 동전과 카메라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학교 선취배인 이들은 이날 가정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다 '열 받는데 차나 깨부수자'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군 등은 범행 중 차량 1대에서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지 않고 계속 차량을 파손하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해남=박진희 기자lucky@

유사석유판매 2명 적발

광주광산경찰은 4일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제련료로 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모(61)씨를 구속하고 조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유사석유 17만ℓ를 구입해 광주·전남 일대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유사석유를 탱크로리에 실고 다니며 대포폰을 이용해 광주·전남 지역 도로변 등지에서 소매상들과 만나 판매해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필상기자 kps@

사촌형제 음독 1명 사망

한 마을에 사는 사촌형제가 음독자살을 시도해 1명이 숨졌다.

4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께 완도군 금일읍 임모(69)씨의 집에서 사촌형인 임모(75)씨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이웃 주민 등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에는 임씨가 숨진 사촌형 아들 집에서 극약을 마셔 중태에 빠졌으며, 숨진 임씨의 부인 조모(66)씨도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임씨 형제는 평소 땅 경계문제를 놓고 잦은 말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services like individual housing and apartment balconies.

채팅녀 알고보니 상습 강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을 기다리던 40대 남성이 강도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서 20대로 보이는 남녀 4명이 침입해 A(40)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이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모텔 방에서 기다리던 중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은 "만나기로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곧 도착하니 방문을 열어달라'고 해 문을 열었더니 이들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범인들이 이 여성과 범행을 공모한 것 아닌가 보고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느닷없는 파도 덮쳐 22명 사망·실종

충남 보령서 낚시·나들이객 참변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갑작스럽게 바닷물이 범람해 갯바위 등에서 낚시를 즐기거나 나들이에 나섰던 관광객들이 숨지고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낮 12시41분께 충남 보령시 남

포면 죽도내 선착장과 500여m 떨어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과 관광객 등 49명이 범람한 바닷물에 휩쓸리면서 8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또 27명은 인근에 있던 어선 등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목격자들은 이날 "바닷물이 썰물처럼 한꺼번에 빠졌다가 2m 높이의 파도가 일시에 밀려들면서 선착장과 갯바위에 있던 낚시객과 휴일 나이들객들이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고 사고 때의 순간을 전했다.

이날 오후 현재 파악된 사망·실종·부상자는 다음과 같다. ◇사망 ▲박종호(36) ▲박성우(5) ▲김경환(46) ▲추창렬(46) ▲추승빈(9) ▲최성길(65) ▲이육재(나이 미상) ◇실종 ▲박선규(60) ▲박주희(15) ◇부상 ▲이덕진(30) ▲정태권(9·이상 중태) ▲정태양(10) ▲김혜리(여·28) ▲김재환(11) ▲김민준(10) ▲장민성(42) ▲임길준(58) ▲김숙자(여·50) ▲김은정(여·32) ▲정우석(39) ▲정유민(7) ▲권영미(여·38) ▲김혜군(32) /연습스

Advertisement for '재혼반 11년!' featuring a couple and text about a 11-year anniversary of remarriage.

Advertisement for '미도' (Mido) featuring a horse and text about a business expansion.